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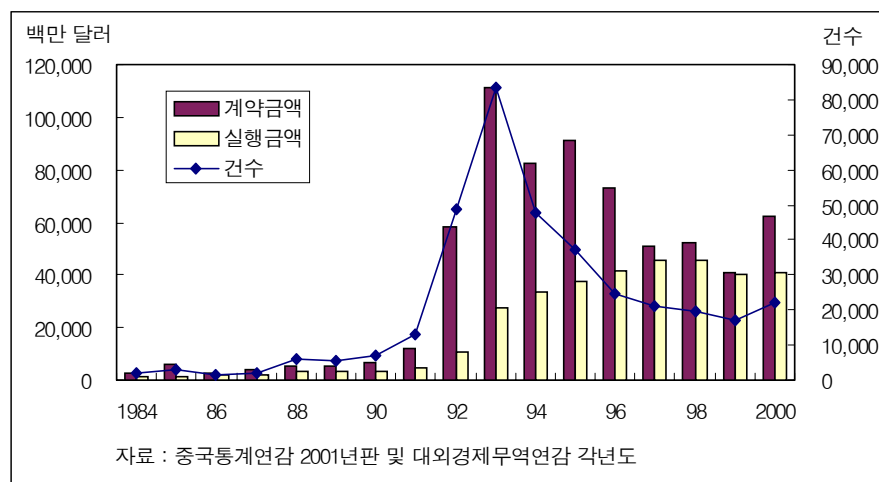
최근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배경과 시사점

I. 최근 동향 및 배경

1. 최근 동향

□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던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(FDI)가 2000년 이후 다시 활발

- 2000년 중국의 FDI는 407.1억 달러(투자기준)를 기록, 전년대비 1.0%의 증가하였음. 2001년 1~9월 기간에도 321.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0.7%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.



2. 최근의 對중국 FDI 증가 배경

□ WTO 가입을 앞둔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및 개방 확대

- 기업경영을 제한해 왔던 지역 이기주의, 과도한 준조세 징수 등에 대한 개혁 지속 추진
- 금융, 증권, 유통 등 각종 서비스분야의 확대 개방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 추진

□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장려책 시행

- 다양한 세제우대조치 부여
 - 총투자 범위 내에서의 기계설비 수입시 관세 및 증치세 면제조치의 부활
 - 텐진(天津) 등 15개 지역에 설치된 수출가공구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15%의 소득세율 부과와 함께 증치세 면제
- 서비스부문 대외개방 확대
 - 소매업의 외국인투자를 베이징,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에만 허용하였으나 이를 전국의 省都·직할시·경제특구로 확대 개방
 - 외국계은행의 위안화 영업 지역제한 완화 및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 허용
- 기업 자율경영 보장
 -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이었던 외화수지 균형의무, 로컬 콘텐츠 등의 폐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함.

3. 2000년 이후 對중국 FDI의 특징

□ 국가·지역별로는 아시아, 유럽이 감소한 반면, 미주는 증가

-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중국 FDI의 70% 정도를 차지하였던 홍콩, 일본, 대만 등지의 투자가 계속 감소현상을 보임.
 - 2000년 아시아 5대 대중국 투자국(홍콩, 일본, 대만, 한국, 싱가포르)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16.7% 증가한 21.7억 달러를 기록함.
- 유럽은 소폭 감소한 47.7억 달러(△0.1%)를 기록함.
- 미주지역의 경우, 미국과 카리브 연안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(tax haven)인 버진아일랜드의 對중국 투자 확대에 소폭 증가함.

2000년 주요 국별 對중국 FDI 현황

(단위 : 건, 억 달러, %)

	허가건수	비중	허가금액	비중	투자금액	비중
홍콩·마카오	7,632 (23.9)	34.2	173.1 (27.3)	27.7	158.4 (△4.9)	38.9
한국	2,565 (65.8)	11.5	23.9 (60.9)	3.8	14.9 (17.0)	3.7
일본	1,614 (38.3)	7.2	36.8 (42.1)	5.9	29.2 (△1.9)	7.2
대만	3,108 (24.4)	13.9	40.4 (19.8)	6.5	22.9 (△11.6)	5.6
싱가포르	622 (23.7)	2.8	20.3 (△10.1)	3.3	21.7 (△17.8)	5.3
영국	261 (13.5)	1.2	8.3 (△23.1)	1.3	11.6 (11.5)	2.9
독일	293 (49.5)	1.3	29.0 (209.2)	4.6	10.4 (△24.2)	2.6
버진아일랜드	1,157 (133.7)	5.2	75.2 (115.7)	12.1	38.3 (44.2)	9.4
미국	2,609 (28.6)	11.7	80.0 (33.0)	12.8	43.8 (4.0)	10.8
총계	22,347 (32.1)	100.0	623.8 (51.3)	100.0	407.1 (1.0)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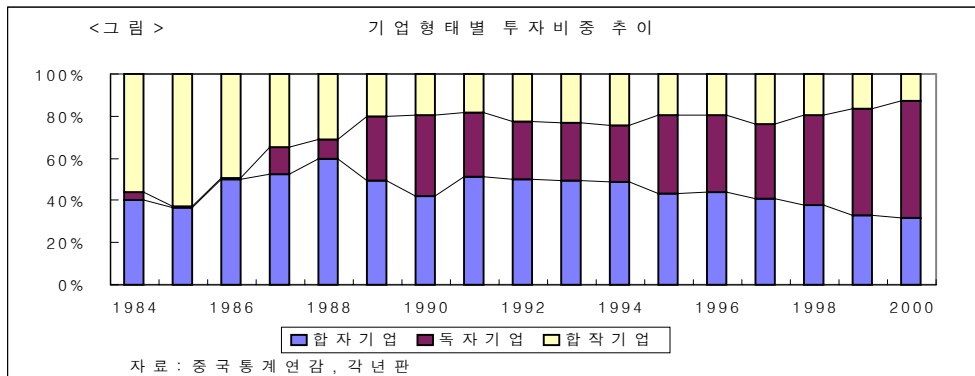
주 : ()은 전년대비 증감률임.

자료 : 중국통계연감, 2001년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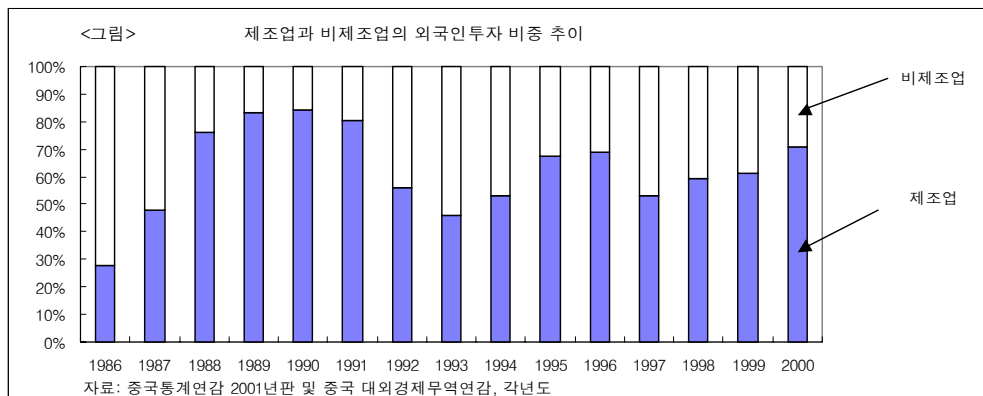
□ 형태별로는 단독투자, 업종별로는 통신,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두드러짐.

○ 그 동안의 중국투자는 합자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단독투자 형태가 늘어나기 시작함.

- 1998년에 합자투자는 37%의 비중을 보인 반면, 단독투자는 42%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처음으로 단독투자 비중이 합자투자 비중을 초과하였으며, 2000년에는 단독투자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어 54%를 차지함.



-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었음. 제조업이 종전 60%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에는 74.7%로 크게 증가함. 이는 정부의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규모 확대 작업의 노력으로 석유화학, 통신,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데 기인함.



II. 향후 전망과 시사점

□ 향후 對중국 FDI 유입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다

- 국내경제의 환경 개선과 대외개방 확대에 힘입어 對중국 FDI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올해 對중국 FDI는 450억 달러로 추정되며, 2005년까지 2,500억 달러가 유입될 전망이다.

□ 중국의 FDI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더욱 강화될 전망

- 첨단산업 위주의 투자기업 선별 유치정책 지속 추진
 -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중국 내에서 과잉 생산되고 있거나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의 생산기업은 투자를 제한함.
- 최근 동 정책에 부응하여 다국적기업의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통신, 석유화학 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함.

□ 투자 목적과 중국 시장여건을 감안한 치밀한 전략 수립 필요

-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시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로 투자진출 업종에 대해 보다 면밀한 타당성조사와 함께 기술력, 마케팅능력 및 자금력을 충분히 구비한 뒤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 - 우리 기업은 중국이 핵심 부품과 소재산업의 경우는 중국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를 중심으로, 완제품 시장의 경우는 고가품 시장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 - 관시(關係)를 통한 인맥구축도 중요하지만 해당 업종에 대한 과잉 투자여부, 경쟁기업과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, 판매망 확보 등 경제 타산적 접근방법이 보다 중요함.

문의 : 개도국신용평가실 차장 김주영 ☎ 3779-6647, jykim@koreaexim.go.kr
 대리 전선준 ☎ 3779-6650, jsjun@koreaexim.go.kr